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2020. 11. 26

주최: 기후위기인권그룹, 기후위기비상행동

주관: 기후위기인권그룹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

후원: 인권재단 사람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일시 11/26(목) 오후 3시 00분 ~ 5시 30분
참여 온라인 생중계
참가신청 <https://url.kr/4qDUf0>
(신청자에게 추후 생중계 링크 안내)

대표 발제1 기후위기와 인권 - 조효제(성공회대)

대표 발제2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사례

- Hasminah D. Paudac(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

증언자1 석탄발전 노동자 - 이태성

증언자2 건설 노동자 - 이상범

증언자3 한국 청소년 - 윤현정

증언자4 필리핀 청소년 - 미치 조엘로

증언자5 농민 - 최창훈

* 본행사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주최 기후위기인권그룹, 기후위기 비상행동

주관 기후위기인권그룹(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

후원 인권재단 사람

문의 기후위기인권그룹(070-7438-8510)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순서

<1 세션>

- 기조 발제) 조효제(성공회대 교수)_인권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봐야 하는 이유
- 증언자 1) 이태성(태안 석탄화력발전 비정규직 노동자)_노동자가 제안하는 정의로운 전환
- 증언자 2) 이상범(인천 건설노동자)_매일 눈뜨면 날씨부터 확인하는 건설노동자
- 증언자 3) 윤현정(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_기특하다는 말보다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기를
- 증언자 4) 최창훈(경북 성주 농민)_이윤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농업이 기후위기 해법이다
- 증언자 5) 미치 조엘로 (Mitzi Jonelle, Fridays for future ph, yacap, 미래를 위한 금요일 필리핀 활동가)_필리핀 청소년이 이야기하는 기후위기와 인권

<2세션>

- 해외 사례 발제) 하스미나 파우닥 (Hasminah D. Paudac, 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 기후 정의 및 책임 캠페인 법률 고문)_기후위기, 기업의 책임을 묻다(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계획 발표)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_기후위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다_
- Q&A 시간

▶ 형식: 온라인 생중계 (기후위기비상행동, 연분홍TV 유튜브 채널)

▶ 주최 : 기후위기인권그룹, 기후위기비상행동

▶ 주관 : 기후위기인권그룹(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

▶ 후원 : 기후위기인권그룹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인권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봐야 하는 이유

인권의 관점에서 기후문제에 대응한다면

조효제(성공회대학교)

기후-인권 감수성

|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

천재(天災) ← '불운'의 결과라고 생각

| 인간 잘못으로 발생한 재난:

인재(人災) ← '불의'의 결과라고 생각

| 기후위기를 인권문제로 본다는 말

= 기후위기 피해를 인재에 의한 '불의'로 본다는 뜻

| 보통의 인권침해 사건: 불의한 가해자에 분노하고 그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

→ 기후위기 가해자라 할 수 있는 화석연료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 **구조적인 차원에서 분노**할 줄 알아야

기후위기=인권문제 : 시각의 확장

(1) 기후위기는 인간 존엄, 가치, 행복이 침해되는 문제다

(2)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강조한다

(3) 국제인권법 프레임과 이행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국가(중앙+지방)의 의무

| **절차적 의무**: 시민교육과 홍보, 정보 제공,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독려와 촉진

| **실질적 의무**

① **존중의무**: 국가나 공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 기업 등 제3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③ **충족의무**: 에너지 빈곤층, 폭염 취약계층, 저지대-상습침수지역 주민, 장애인, 여성-아동, 이주민, 노인, 산불 피해주민, 야외 노동자, 노숙인 등 대책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인권 동향

| 유엔 현장기구

- _ 인권이사회 결의안 (2008)
- _ 인권최고대표 공개서한
- _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연구보고서
- _ 인권특별보고관 활동

| 인권조약 위원회 (권고문, 특별성명, 일반논평) 사회권, 여성차별철폐, 이주노동자 아동, 장애인, 자유권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6호 (2018) <자유권규약> 6조 생명권 유권해석

| 환경훼손, 기후변화 그리고 지속불가능한 발전이야말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생명권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시급하고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국제환경법 당사국들의 의무사항이 자유권규약 6조 생명권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자유권규약 당사국들의 생명권 존중-보장 의무사항이 국제환경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가 환경을 보존하고 공적-사적 행위자에 의해 초래된 피해, 공해, 기후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때, 생명권 특히 존엄을 지닌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다.

| 자유권규약 당사국 의무

- _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 _ 실질적 환경기준 마련하고 이행
- _ 환경영향력 평가 실시, 관련 국가들과 환경 문제 자문
- _ 자연재해와 긴급상황에서 여타 국가들에 통보하고 협력
- _ 환경 유해 정보 접근성 제공 및 사전예방적 접근

국제인권운동

| <인권과 지구신탁관리 책임에 관한 보편선언을 위한 헤이그원칙>(2018): “인간이 지구환경의 보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때 인권의 온전한 실현이 올 수 있다”

| <기후, 권리, 인간생존에 관한 민중 정상회의 선언문>(2019): “우리는 오늘 경제적, 사회적, 법적, 정치적 시스템을 변혁해야 할 기회와 긴급한 필요성을 마주하고 있다. 형평성과 인권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이고, 기후위기와 대량멸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이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공해유발자의 행동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고, 화석연료와 모든 지속불가능한 기업활동을 과거지사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폭력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기후위기를 인권문제로 규정한다면 Simon Caney(2010)

| 정책 우선순위 발생: 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기본가치이므로

| 비용-편익 계산방식의 거부

- _ 인권 유린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감축을 해야
- _ 인권은 확고한 규범성을 강조하는 담론이므로

| 감축과 적응 외에 ‘보상’이 포함되어야

- _ 인권 침해시 법적 구제와 배·보상 받을 수 있음

| 인권침해 후에 보상해 준다는 식의 ‘흥정식’
(trade-off) 발상은 금지

| 2차 가해 방지원칙 = 정의로운 전환

기후-인권행동 유의사항 (1)

| 개별 침해사례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합

→ 둘 다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 문제해결식 접근 + 조건형성식 접근

→ 개별문제 해결 + 근본원인 해결 함께

→ 대증요법 + 원인치료

기후-인권행동 유의사항 (2)

| 인권의 도구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을 통합

| 도구적 기능

문제 해결 인권 법-제도-조례 등 인권증진 도구를 이용해

- 인권을 사법적 관점으로 인식
- 기상재난에서 기후변화가 차지하는 귀책범위?

| 표출적 인권

- 인권 원칙과 규범을 선언하고 주창
- 인권을 정치적 관점으로 인식
- 인권의 이름으로 직접행동, 캠페인, 토론

기후-인권행동 유의사항 (3)

| 인권의 공간적 확장과 시간적 상상력을 통합

| 인권의 공간적 확장

- _ 모든 나라에서 보편인권 규범 수용, 이행
- _ 국제인권규범의 확산

| 인권의 시간적 상상력

- _ 긴 시간 속에서 인권침해의 확률적 개연성 인식
- _ 과거세대 탓에 현재세대가 기후위기 고통
- _ 현재세대 탓에 미래세대의 생명, 존엄 유린

장기적 인권 구상

| 세대간 정의

| 미래세대 생존권

- 후손살해(Postericide) 범죄 대처
- 생태살해(Ecocide) 범죄 대처

| “착한 조상” 인권운동 (Good Ancestor)

| 대성당 건축식 사고방식 (Cathedral Thinking)

몇 가지 고려할 점

- | 권리 침해진정, 정책진정 모두 준비
- | 유엔 제출 국가 보고서 작성에 기후위기 실태 및 기후대응 정책 포함
 - _ 각 인권조약 보고서 작성
 - _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 작성
 - _ 외교부, 법무부, 각 부서, 국가인권위
- | 기후소송에 관한 국가인권위 입장 질의
- | 석탄화력발전 운영-투자 등에 관해 국제인권 쟁점화

감사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이태성 태안 석탄화력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가 제안하는 정의로운 전환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1998년부터 일하고 있고, 올해로 23년차 하청노동자 이태성입니다. 태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 졸업 후 27살에 한전산업개발이라는 한전 자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아내와 딸 두 명을 둔 가장이기도 합니다.

1.

사실 기후변화는 우리에게는 먼 얘기였고,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가 되고 기후 위기가 닥치고 이와 관련된 캠페인들을 보면서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기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기사도 접하면서 지구가 아프구나! 그리고 나도 죽을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기사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의 이야기였습니다. 알바트로스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일주일정도 1만6,000km 이상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알바트로스는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바다가 제공하는 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새들은 엄마가 주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받아먹고 죽어갔습니다.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들이 죽어가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알바트로스는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



크리스 조던, '미드웨이: 자이어의 메시지' 사진 연작. 배 속에 플라스틱 조각이 가득 차 죽은 알바트로스.

우리도 발전소에서 일하긴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환경오염(냉각수로 인한 해수의 온도 상승, 석탄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탄소배출 등)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오염을 시키는 주체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다른 알바트로스가 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정부가 석탄화력 발전소를 봄가을에 중단하면서 실제로 미세먼지가 많이 준 것을 봤을 때 발전소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2~3년 전부터는 발전소 주변 주민 중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탄에 1급 발암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5년 만에 폐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세계9위의 탄소배출국,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기후 깡패'로 불린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탄소 배출량을 평균 8.7% 줄였지만, 한국은 오히려 24.6%나 늘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의 길었던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정치적 쟁점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이번 문재인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보면서 발전소 폐쇄는 사회적 문제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2.

사실 오늘 주제가 현장의 노동자에게는 다소 두려움이 앞서는 내용입니다. 나의 일터가 없어지고 고용불안을 넘어 삶의 공간까지 붕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가 2034년까지 기존의 석탄발전소 60호기 중 30호기를 폐쇄하고 2050년까지 충남의 경우 운영 중인 발전소 전부를 폐쇄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석탄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일자리가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히 큼니다. 또한 우리의 고용형태는 대부분 하청, 용역이기 때문에 안 써주면 그만인 소모품 같은 사람들이기에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불안은 더욱 큼니다. 에너지 전환과 함께하는 일자리 전환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린뉴딜은 탈탄소를 목표로 산업을 바꾸는 일입니다. 필연적으로 기존 탄소배출 산업은 없어지게 되고 그 일자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전환 과정은 노동자들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뉴딜이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원자력발전소 발전소 폐쇄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원전마피아라는 수식어가 붙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 석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도 지지하고, 석탄발전소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전환을 통해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석탄발전소 폐쇄를 반대하는 노동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에서 분진마스크에 의존해서 일 하고 있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인 저와 동료들은 발전소 시설 장비에 대한 모든 권한이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거부 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서는 것은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고용 승계 등을 포함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고 제발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호소하는 것 뿐 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짓겠다는 LNG 발전소가 탈탄소 에너지 전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민간 화력발전소는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후 대응에 정부가 나서서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민간에게 개방하면 자본의 이익과 탐욕만 앞세울 것이 뻔합니다.

또한 고용형태와 직무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잠시 자세히 설명 드리면 발전사 5개사의 정규직은 12,000명 정도입니다. 청소·경비·시설은 자회사로 전환됐는데 여기도 여전히 용역계약으로 약 2,700명, 석탄을 운송하는 환경 설비 운영이 2,700명, 전체 발전설비를 정비하는 인원이 5,400명으로 비정규직은 총 10,800명 정도입니다. 신규 건설되는 LNG 발전소로 정규직 업무는 대부분 고용이 승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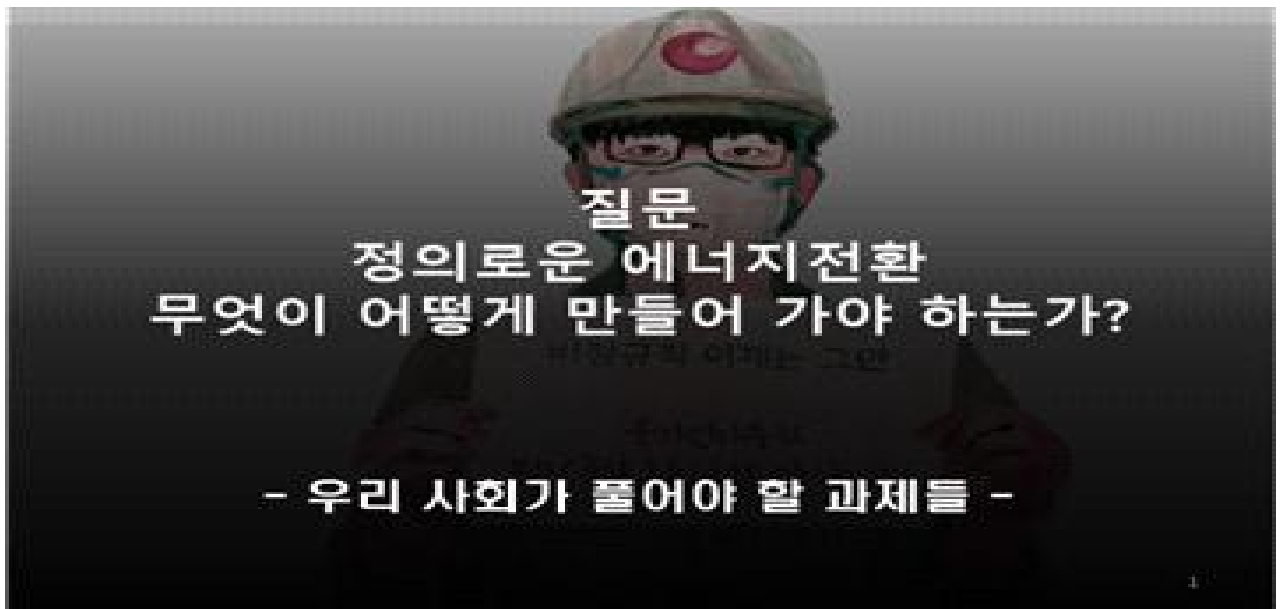


비정규직의 입장은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지만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대체 업무 개발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2034년 30호기 폐쇄에 따른 사회적 논의기구 반드시 필요합니다. 1만명이 넘는 노동자, 가족, 지역공동체 붕괴는 물론 경제적 타격도 심각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유럽과 캐나다 진행 한 에너지 전환 모델 사례처럼 한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전환 고용보장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협치 구조를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봅니다.

3.

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단계적으로 진행한 하더라도 하청노동자들의 50%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그린 뉴딜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어디서도 그런 대책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 속에서 노동자의 생존권, 인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기후 위기와 관련된 행동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고용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환경단체들이나 국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에게도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생기면 안 된다고 주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환경전문가의 입장을 확인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면서 이야기 중입니다. 기후대응 그린뉴딜 과정에 노동 문제를 최대한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국가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한 국민인데, 국가의 정책으로 삶의 터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일한 노동자들을 보호할 정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론화할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해서 국민의 70~80% 정도가 동의할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석탄 발전소에 다닌다고 하면 범죄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도 국민입니다. 예전에는 발전소 다니면 좋은 직장 다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뒤부터는 발전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 미세먼지 많이 나오게 하는 곳이죠?’ 당신들 때문에 마스크 쓰잖아!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범죄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삶의 터전이 곧 다 없어지게 되니 걱정이 큼니다. 만에 하나 전환 배치가 되더라도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일했던 자부심 등이 사라지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른 삶에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호소합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논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체로 서야합니다.

이 논의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대응의 시급성, 이번 세기말 온도상승 폭이 1.5도 이내로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경제논리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 논의과정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4.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고민들을 쏟아내게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신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석탄 발전소로 인해서 죽는 주민이 995여명 (조기 사망) 정도 되고, 우울증 등을 앓는 사람이 7,000명 정도라는 기사였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주민들에게,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인과관계를 봤을 때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빠르게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해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더 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다 보면 지구를 지킬 수 있고 다시 살릴 수 있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알바트로스, 거북이, 고래, 그리고 사람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이상범 인천 건설노동자

매일 눈뜨면 날씨부터 확인하는 건설노동자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상범입니다.

1.

일단 제가 지구온난화/이상기후변화에 대해 언제쯤 듣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TV등에서 지구 온난화다, 그로 인한 역대급 폭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사실 별로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보통 33℃ 이상이면 폭염주의보를 발령합니다. 그런데 35℃가 되어도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면 족지 건설자본은 공사 중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온도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정말이지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 같은 형틀목수 기초공정의 경우에는 벽체와 지붕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늘이 없는 곳에서 작업을 주로 합니다. 그렇게 더운 날에는 일을 하다가도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건설현장 작업 현장 평균 연령이 56세 정도입니다. 2018년 역대급 폭염이 왔을 때 현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노동자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같은 경우는 원래 열이 많이 나고 뜨거운 작업이기 때문에 쓰러지시는 분 중에는 그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설사 쓰러진다고 해서 공사 중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공사 중지가 들어갑니다. 사람 죽이는 폭염 속에서도 노동부에서는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폭염에서는 휴식 시간을 주거나 공사 중지를 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권고일 뿐 강제가 아닙니다. 건설자본은 공사기한이 걸려 있고 그게 돈이랑 연결되어 있으니 굳이 권고를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건설 노동자가 너무 많은 차별을 받는 것 같고, 폭염이라는 조건 속에서 직격타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작업을 중단하면 임금이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폭염 때만이라도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들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 때는 새벽 3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오전 11시에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작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먼 곳으로 출근하는 건설노동자 특성상 1시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 또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폭염이나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도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농작물을 생산해야 하는데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하고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폭염, 폭한 등에 대한 악천후에 생계수당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염 이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올여름 50일 넘게 이어진 긴 장마입니다. 현장직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가 오래 내리면 타격이 큼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 두 달 동안 거의 3주 정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비가 와도 출근을 했습니다. 혹시나 비가 그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온 좋게 비가 그쳐도 일을 시작하고 1시간 후에 비가 오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퇴근한 적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냥 봉사활동 했다고 생각하며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해 8시쯤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겨울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영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가 굳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일을 하지 않고 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든, 폭한이 오든, 우리는 놀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직격타를 맞고 생계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

이쯤되니 폭염이나 긴 장마를 기후 위기라는 맥락 속에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덥거나 춥거나 했을 때 일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만 하지 그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증언대회에 나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런 게 기후변화이고 이로 인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씨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더워진다고만 생각했었지 너무 춥거나 비가 많이 오는 것도 그로 인한 현상이라는 것을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우선은 생계가 중요하니까 일해서 돈버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날씨가 어떤지 매일 챙기면서도 너무 더운 날씨 혹은 너무 추운 날씨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야기하지 이상 기후나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깊게 생각한다고 별로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영향은 오히려 건설 노동자들이 더 많이 받는데도 우리가 그 문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연하다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것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소주 한 병 하고 잠자리에 들기 바쁩니다. 우리 팀원들한테도 이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건설노동자대표로 나가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자 팀원들은 니가 가서 얘기한다고 뭐가 바뀌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 저는 뭐라고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냐고 라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그 사람들과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야기, 먼지 구덩이에서 쉬어야 하는 이야기, 현장에서 사람들 쓰러지는 이야기,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비참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일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기후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의 이야기가 기후위기와 건설노동자의 인권이라는 주제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기후 위기로 인해 건설노동자인 저는 어떤 인권 침해를 겪고 있을까요. 인권 침해가 누가 누구를 때리고, 괴롭히는 것만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 그런 날씨에 회사가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폭염에는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입니다. 발을 매는 소도 그런 폭염 속에서는 일을 안 시킬 겁니다. 건설사가 노동자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날에는 쉬라고 먼저 말해야 하는데 건설자본이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작업을 지속하는 것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관계자에게 이런 날씨는 공사 중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관계자는 무슨 소리냐, 너네 돈 벌어야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혹자는 쉬고 싶으면 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일이라는 게 혼자서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설자본들은 자기들 돈 벌려고 공사를 하면서 마치 건설노동자들 돈 벌게 해주려고 공사한다는 듯이 말하는 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작업중단 권고나 내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권고만하면 제가 사장이라도 안 지킬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방조고 살인미수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정부는 권고는 했다면서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정부도 책임이 없고 건설사들은 휴식시간을 주며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지켰다고 하고 이건 자연재해 천재지변이라는 추악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은 사람만 억울한 상황이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건설자본이 공모해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생존권 침해이자 학대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

기후 위기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그냥 자연재해니깐 어쩔 수 없고, 그냥 밖에서 일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자본주의로 인해 득을 본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들은 기후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데, 기후 위기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현재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요구들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한, 폭우의 환경에서 일을 못 나가게 되는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인간

이 만들어 낸 기후 위기의 결과라는 점. 과학자들은 이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를 빨리 멈추든지, 적어도 그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는 정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폭염, 폭우 같은 조건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 속에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입니다.

기후위기에 책임있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일반 시민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보자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세상을 바꿀 권력도 없고, 이 문제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지 말을 해야 저 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청원 같은 경우도 많은 국민이 의견을 내면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이 문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 노동자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면 사회에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희망사항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건설노동자로 일하면서 겪은 일이고,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윤현정 청소년

기특하다는 말보다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기를

기후위기 때문에 나는 꿈꾸기가 무섭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하고 있는 울산에 사는 17살 윤현정입니다.

1.

지금 제 나이는 흔히들 말하는 꿈 많은 나이입니다. 실제로 친구들이 많이 꿈을 꾸니다. 나는 약대에 간 후에 로스쿨에 가서 약학전문 변호사가 될 거야.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교환학생 신청할거야. 나는 대학교 안 가고 바로 취업해서 일할거야.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유럽에 배낭여행 갈 거야 등등. 실제 제 친구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자신 있게 무얼 하고 싶은지 말하고 다닙니다. 저는 대학교에 가서 배우고 싶은 것을 더 많이 배우고 유학도 가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위급함을 아는 지금의 저는 어떨까요? 저는 꿈이 없습니다. 미래를 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생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여름은 기후위기가 현재의 일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준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여름은 공포스러웠습니다. 뉴스에서는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한 무서운 일들이 매일같이 보도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저희 동네 창문이 다 깨지고 차들이 파손되고 신호등이 꺾여서 경찰관들이 교통지도를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전이 되어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볼도 들어오지 않는 교실에서 컴퓨터도 쓰지 못하고 교과서로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겪은 일은 단순히 불편한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일 년 내내 일어날 것이고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에 저는 이번 여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나의 미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존재한다면 지금 같을 수는 없겠구나. 기후위기가 나의 미래에 존재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겠구나. 나는 매일 매일을 생존을 위해 살아야만 하겠구나. 안전한 미래뿐만 아니라 안전한 현재도 존재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 전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정책결정자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라는 감정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위에 존재하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국회, 정부, 기업을 보며 기후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드는 생각은 공포, 막막함, 좌절, 우울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기후행동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도 버거워 졌습니다. 늘 어디에 불이 났다. 산사태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메탄가스가 나온다.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는 시간 7년이 아닌 5.5년 남았다. 이 같은 기후위기에 대한 뉴스는 저에게 공포와 우울만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가 닥쳐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미래가 있지만 어른세대들에게도 미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유독 미래를 살아갈 권리, 미래를 꿈꿀 권리를 외칩니다. 어른세대들은 지나온, 당연하게 여겨온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간절하게 지키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세대들은 청소년

의 나이 때 10년 후에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하지 않았어도 되었고 그들에게 10대, 20대의 시간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5도를 달성할 탄소예산을 다 써버렸을 때 저는 23, 24살로 이제 막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울 나이입니다. 그 때 저는 기후위기와 직면하게 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 한다면 저는 23살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기후위기 속에서 생존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위협이 오기 전 많은 사람들은 10년, 20년 후 미래를 자연스럽게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땅하고 당연한 미래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저는 기후위기에 심각성을 느껴 기후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축산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비건이 되었고 축산업이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고는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후위기를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은 분노와 배신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맨날 기후위기도 아닌 지구 온난화 이야기를 하며 플라스틱 줄이기, 분리수거 잘 하기 같은 개인적인 실천만을 강조했고 우리 세대의 일이 아닌 100년, 200년 후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정책결정권자들을 보며 분노해서 기후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영이라는 친구와 울산에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했기에 개인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선에서 멈추었고 부족하다고 느껴 직접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으로 지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후위기에 심각성을 느끼고 피켓팅을 하고 기후행동을 시작하자 달라졌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곧 있으면 고등학교 가는데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결석시위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대학교 가면 해라, 시위는 교육적이지 않으니 가면 안 된다 등등 제 행동을 억압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켓팅을 나갈 때 만나는 어른들은 함부로 저희의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마디씩 툭툭 던지고 가셨습니다. 대학 잘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거 할 시간에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나중에 커서 해라, 전교조가 선동했냐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한 거기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를요. 청소년들은 이래야 한다는 틀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비난을 받고 우리의 메시지는 사라집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청소년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같은 편견들은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습니다. 어른세대의 기준에 맞추어 우리들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청소년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3.

기후행동을 하면서 정치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기특하다” 꼭 정치인 분들이 아니어도 듣는 말입니다. “기특하다”는 말 뭐가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기특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 절박함은 무시하고 그저 ‘좋은 활동을 하는 청소년’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우리의 메시지, 요구사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받은 집단이 우리에게 ‘기특하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 파업하는 노조한테 열심히 파업하라고 응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싶어 하십니다. 청소년들과 만나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듣고 답했다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으시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사진 찍기 좋은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지난 10월에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에 대해 질의하시는 의원들의 참고인으로 출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나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제가 느끼는 것을,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마땅하고 당연한 미래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박할 수 없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청소년은 여야의 쟁점입니다. 어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청소년만 환영받는 것이 아닌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모든 청소년이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나이 하나로 제가 미성숙해 보이는 것에 반기를 들고 싶습니다. 청소년이기에 할 수 없는 이야기, 청소년이기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활동을 계속하지만 이 사회의 시선과 억압으로 활동을 나서지 못하는 또래 친구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활동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기후행동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 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최창훈 경북 성주 농민

이윤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농업이 기후위기 해법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Hasminah D. Paudac 필리핀 그린피스
기후위기, 기업의 책임을 묻다

Slide 1: 소개

- 저를 초대하고 우리의 일을 공유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필리핀 사무소의 기후 정의 및 책임 캠페인 법률 고문 Hasminah D. Paudac입니다. 메인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후 정의 이야기에 대한 짧은 비디오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기후정의 이야기)

- 필리핀에서 우리는 2시간만에 10,000 명의 사람들을 잃었습니다(대형 태풍 하이옌/올란다의 생존자들). 해수면은 높아지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잡을 수 있는 물고기들은 줄어듭니다(어부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 필리핀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0년 전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가스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온난화는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삼림 벌채, 농업,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일,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활동과 같은 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015년 필리핀의 용감한 사람들은 선두에 서서 필리핀 인권위원회에 안정적인 기후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정표가 될 만한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청원 덕분에 획기적인 대중 청문회가 필리핀, 뉴욕,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쉘, 엑손, BP와 같은 47개의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와서 실상을 보라고 그들을 초대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결말은 전 세계의 취약한 국가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그들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부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잃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더 강하고 큰 규모의 태풍을 기다려야 할까요? 기후 정의에 달기 위해 또다른 비극적 이야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후 정의 이야기입니다.

Slide 2: 기후 변화

- 필리핀에서 슈퍼 태풍 하이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이옌은 현대 역사 상 가장 파괴적인 태풍으로 국가의 집단 기억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남긴 피해는 수조 페소에 달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인 6,340 명을 훨씬 초과한 많은 생명이 희생 당했고, 오늘날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삶을 복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 세계적인 비정부기관 저먼와치(Germanwatch)가 발행한 기후위기지수 2020에 따르면, 필리핀은 2018년 기상 관련 손실 사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2위를 차지했고, 경제와 평화 연구소에서 발표한 국제평화지수(GPI)에 따르면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가장 큰 리스크를 안게 될 국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 그리고 기후변화는 근본적인 불평등과 부정을 악화시키는 세계적인 도전과제입니다. 부유한 선진국들이 배출량에 가장 많이 기여함에도,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균형하게도 이미 불리한 상황에 있거나 대처 능력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나 커뮤니티에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필리핀의 경우 배출량에 가장 적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가장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후 정의를 요구합니다.

Slide 3: 기후 정의, 현대판 콜리앗을 쓰러뜨리기

- 기후 정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기후 위기를 부채질하고 기여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구하고, 화석연료의 신속하고 공정한 퇴출을 의미합니다.
- 1751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에서 인위적 또는 사람에 의해 배출된 탄소의 69.8 % 이상이 단 90개의 기업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이는 미국 NGO인 기후책임연구소 리처드 히드(Richard Heede)의 획기적인 연구에 기초한 자료입니다. 90개 기업 중 50개 기업은 투자자 소유였으며 모든 인위적 요인의 CO² 배출의 21.4 %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그린피스 필리핀, 13 개의 다른 비영리 단체 및 18 명의 대담한 개인들로 구성된 총 32 명의 청원인)는 쉘, 쉘브론, 엑손, 토탈과 같은 투자자 소유의 탄소 오염 기업들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기업 합병 및 인수로 인해 피고의 수가 47개로 감소했습니다.
- 탄소 오염자들이 반복적으로 잘 활용하는 논리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해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책임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기후위기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그로 인해 혜택을 본 누군가의 책임과 의무를 고려하지 못하게 합니다.

Slide4: 청원자의 견지

- 오늘날, 과학 발전 외에도 기후 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해 기후 변화에 대한 화석연료 산업들의 인식, 지식 그리고 그들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오늘날 필리핀 사람들은 화석연료 산업이 막을 수 있었던 인권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고들은 경보를 울리는 것 대신 새로운 과학적 합의를 모호하게 하고 기후 행동을 지연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법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우리는 책임과 정의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 청원을 통해 청원인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 국민들의 헌법상 보호를 받는 인권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더 이상 침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명예위원회(Honorable Commission)의 조사, 권고 및 감시 권한이 발동되었습니다.

Slide 5: 구제책

- 청원인들이 요청한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주로 청원인들은 인권위원회가 피고 탄소 기업들이 필리핀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 관해 결론을 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정책결정자들과 입법자들이 인권에 관한 기업 보고에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명백하고 실행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발전시키고 채택하기를 권고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제공하는 책임 메커니즘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Slide 6: 이번 진정의 의의

- 아까 보신 영상에서 눈치 채셨겠지만 이 여정은 5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지난 9월 22일 우리는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지 5주년을 맞아 이정표를 기념하였습니다.
- 이 진정의 독특한 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되고 받아들여진 최초의 기후변화 관련 진정이라는 점입니다. 진행절차는 종료되었고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결의 또는 최종보고서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또한 이 사건은 쉘, 엑손, 쉘브론, BP, 토탈과 같은 47개의 다국적의 대형 석탄, 오일, 가스, 시멘트 사설 기업이 연루된 최초의 법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 또한, 인권 기관이 최초로 필리핀 국내뿐 아니라 탄소대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그들의 사업 중심지인 뉴욕, 런던, 암스테르담과 같은 해외에서 공청회와 청문회를 진행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의해 국내조사 절차가 세계적 청문으로서의 의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Slide7: 국가 조사의 개요

-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78명의 증인과 전문가가 출석하였고, 최소한 239개의 문서가 제시되었습니다.
- 기후 소송이나 행동에 있어 법정만이 유일한 장소지는 아닙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스스로 중요한 장소지이자 이상적인 매커니즘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기후변화는 글로벌 이슈이고, 경계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인권기관은 법정처럼 엄격하거나 기술적인 규칙에 매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 이슈에 대한 글로벌한 대화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하는 것은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의무부담자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관할과 법이 지배하는 법원의 경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 손해나 재정적 책임에 기초하지 않고도 사적 주체들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전략적이기 위해 이를 넘어 시스템적인 변화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및 국제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그룹 및 사람들과의 전략적 제휴에 있어 용이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른 14개의 비영리단체 및 환경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를 조사해보자, 최소한 18명이 앞에 나섰습니다. 또한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는 다양한 명망 있는 국제조직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 당신의 사건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정받는 국제조직의 법정의견 제출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13개의 법적, 과학적 전문가의 법정의견 또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기후 과학을 확립하는 것이 귀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데이터에 있어 3개의 꼭지점(triangulation)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사례를 증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역 사회 증인, 기후 과학, 법, 정책 및 연구에 관한 국내 전문가와 국제 전문가라는 주요한 세 가지 꼭지점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침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정책 조사와 청문회에서 우리는 화석 연료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은 지역 사회의 증인들을 단상에 모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의적 상황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 그리고 제시된 증언과 과학 그리고 법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 스토리텔링과 캠페인은 내러티브의 담론을 높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캠페인으로 우리의 행동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청원서에 대한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토리텔링, 벽화, 영화제 등의 활동주의 예술을 의미하는 “행동하는 예술 (ARTIVISM)”을 활용하였습니다. Human LIVErary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겪은 투쟁과 고통 받는 부정의 문제에 관한 개인들의 기후 관련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 정치권과의 결합을 통해 우리는 사건을 보완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권위원회 권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후정의 인식을 위해 지방 정부 단위 (LGU)와 협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요 3 개 섬 그룹의 각각 다른 도시/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조사와 우리의 청원을 지지하는 최소한 5개의 결의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커뮤니티 운동도 중요합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적 행동을 취함과 동시에 활발하게 커뮤니티와 결합하였습니다.
- 국제 포럼에 참여하여 당신의 사례를 논의하고 그것을 국내적 또한 국제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사건을 주류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가 국제 사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타임라인을 서두르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 절차에 있어서의 주인 의식은 중요합니다. 청원인들과 고발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대리인들도 전체 프로세스를 장악해야 합니다.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해결을 도출할 때

설정한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심의에 대한 장악력을 가져야 합니다. 전략은 인권 위원회가 당신의 사건을 보통의 사건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들여다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론을 향한 이정표와 선례가 될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 당신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나 유사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정부 기관을 상대로 우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정치적, 법적 상황에 달려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초점을 법원에 한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우리 사건에 사용했던 기술들을 차용하거나 결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Slide8: 최근의 성과

- 최근의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2019년 12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COP25 때, 국가 조사를 이끌었던 필리핀 인권위원회 위원장 로베르토 카디즈(Roberto Cadiz)는 초기 연구 결과 중 일부로서 특히 탄소 대기업들이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에 있어 분명한 역할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소 대기업들은 또한 기후 문제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행동 기준을 수립함에 기초로 삼아야 하며 국제인권법에서 파생되어 나온 유엔 지침 원칙에 의해 규정된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예비적인 발언으로써, 올해 7월 29일 인권위원회와 공동 주재한 대중 웨비나에서 카디즈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의 한계상 그 중 몇 마디를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 첫째, 기후변화는 인권과 실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정의와 비즈니스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의의 문제인 이유는 필리핀의 커뮤니티와 개인들과 같이 기후변화에 가장 기여하지 않은 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문제인 것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거 기여하고 위기를 완화하는 데 있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 둘째, 국제인권법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국내법에 의해 국내 법원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법령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는 정부가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들이 정의에 접근하는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채택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셋째, 위원회는 탄소 대기업들에게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할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과학을 방해하거나 모호하게 만들거나 청정 또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지구적 전환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대기업들의) 고의적인 행위들이 법적 책임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책임은 국내/지역의 법원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국제인권법을 통해 알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넷째, 위원회는 탄소 대기업들이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기후변화와 인권 영향 평가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이를 규제당국뿐 아니라 정부 전반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다섯째, 위원회에 따르면, 주주들에 대한 신탁의무 위반, 투자자에 대한 사기, 불법행위법에 근거한 민사책임과 같은 그들의 책임을 물을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 여섯째, 위원회는 또한 국가들이 화석연료 추출과 관련하여 인센티브와 절세 제공을 중단하고,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활동과 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 일곱째, 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들은 투명성 원칙을 증진 및 강화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예컨대 그들이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같은 탄소발자국에 있어 보다 투명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 최근 인권위원회는 내부에 기후변화 관측소(?, climate change observatory)를 시작했습니다. 청원인들에 있어 이것은 요청 사항 중 2가지가 승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이고 이정표입니다.
- 첫째,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국가 청문의 모든 자료를 대중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서류와 증거 기록들은 기후 소송을 하고자 하는 모든 대중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둘째,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인권 영향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우리의 법적 조치 전에는 그들이 해오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Slide 9: 청원인과 기후정의운동의 1차적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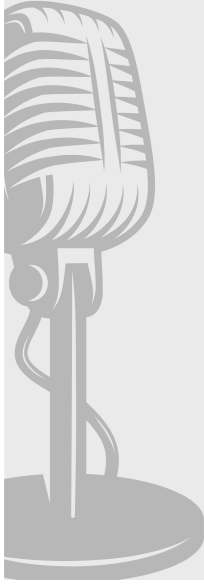
- 늦어도 올해 말, 최대한 빨리 결의나 최종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몇 가지 이유로 이미 예비적 발견을 승리로 보고 있습니다.
- 먼저 탄소 대기업들이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에 있어서 분명한 역할을 했다는 청원인들의 입장을 입증하였고, 이들은 이에 책임이 있습니다. 즉, 기후 정의의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 화석 연료 기업들이 기후 위험에 대해 무엇을 알았는지, 그 지식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증거는 법적 청구의 강력한 기초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물론 연구자들과 기자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 조사는 기후와 관련된 인권 영향과 관련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권위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과학적 조사, 문헌적 증거, 법률적 분석을 조성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위원회 사이트에 올라와 대중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최초입니다.

Slide 10: 참고 링크

- 국가 청문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참고할 수 있는 링크는 이와 같습니다.

교훈

- 우리의 법적 조치와 기후정의 이야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한 의도로 싸운다면 다윗과 골리앗 신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인권만큼 좋은 의도는 없습니다. 삶에 대한 기본적 권리, 즉, “좋은 삶은 살 권리”라는 기본권을 배우지 않고 인권을 옹호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삶을 사는 것의 기본은 안정적인 기후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의 보장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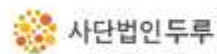
기후위기, 인권위 진정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제도 개괄 및 진정 계획

“기후위기는 인권 문제다”

사단법인 두루 지현영 변호사

2020. 11. 26.



Copyright © DUROO All rights reserved

목차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도
2.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개괄
3. 진정계획
4. 진정인 참가 방법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도

1. 진정사항 및 절차

■ 진정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진정 절차

1. 연권상담	2. 진정접수	3. 사건조사	4. 위원회의결	5. 당사자통보
연권상담 및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석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합니다.	진정서जन은 일단 조사권한에 해당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원고, 피고, 각하, 합의종료, 각종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지 피고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합니다.

2. 진정의 효과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인정 시

- 구제조치
 -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관련 법령·제도·정책 또는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

- 기각/각하의 경우에도,

- 관련 법령·제도·정책 또는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 조사·연구, 의견 표명 가능

2.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개괄

2. 인권위원회의 기능

■ 정책

-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 표명
-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의견 표명

■ 조사·구제

-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조사·구제
- 성희롱 조사·구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구제

■ 홍보

- 국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

3. 진정 계획

1. 피진정인, 침해행위

• 피진정인 : 대한민국 정부

- 대통령
- 정부 부처
- 소관기관

• 침해행위

- 대한민국 정부가 파리협정 및 IPCC 보고서가 제시하는 지구 기온상승의 임계치 도달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그로 인한 진정인의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 및 체류의 자유 등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구제조치 또는 대응을 하지 않는 행위

2. 침해되는 기본권

• 침해되는 기본권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생명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 헌법 제13조 : 거주·이전의 자유
- 헌법 제15조 : 직업의 자유

• 침해되는 국제인권규범 상 기본권

-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제3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 제1항, 아동권리협약 제3조)

ICCPR 생명권 일반논평 :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오염, 지속불가능한 개발이 미래 세대의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이며, 정부는 공적·사적 행위자가 야기하는 피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상, 식량에 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 건강권, 적절한 환경의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 파리협정 전문 : 인권 관련 의무가 UN기후체제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인정한 최초의 국제환경 협약

3. 진정한 사례

- 농민 (건강권, 생명권, 직업선택의 자유)

- 예측이 어려운 이상 기후 및 재난의 증가로
 - ✓ 수확량 감소
 - ✓ 품질 하락
 - ✓ 품종의 변경
 - ✓ 토지 생산성 저하
 - ✓ 업종 변경의 위협
 - ✓ 용수 부족
 - ✓ 냉해 피해
- 폭염 노동으로 인한
 - ✓ 열사병 등 질병
 - ✓ 사망

3. 진정한 사례

- 양봉업 종사자 (직업선택의 자유)

-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 어민 (직업선택의 자유)

- 재난 재해 발생의 증가로 양식생물 대량 폐사
- 해면 수온 상승 등에 의한 해양 생태계 변화로, 어획량 감소 및 어종 변화
- 기후 변화에 따라 바다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계절마다 어민들이 해왔던 작업에 차질 발생

- 재난 피해자 (생명권, 행복추구권, 거주권의 자유)

- 산불 피해
- 폭우 피해
- 가뭄 피해
- 태풍/홍수 피해

3. 진정한 사례

- **노동자 (건강권, 생명권)**

- 폭염 노동으로 인한 생명과 건강 침해
- ✓ 청소노동자, 제철소노동자, 급식노동자, 배달노동자, 방송노동자, 공항노동자, 굴삭기 노동자, 가스검침원, 택배기사, 경비원 등
- ✓ 2020. 10. 29. 인권위, 건설노동자에 대한 "폭염 작업 중지시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편의시설 휴게실 및 샤워실 추가" 권고 의결

- **폭방촌, 고시원 거주자 (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적절한 환경의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 폭염으로 인한 생명과 건강 침해
- 침수로 인한 피해

3. 진정한 사례

- **소비자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 우리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매 저하
- 농산물의 품질하락, 변경으로 인해 질 좋은 농산물을 먹지 못하는 것
- 비료 사용 증가 등의 이유로 건강 우려

- **해수면 상승 영향 지역의 시민 (행복추구권, 생명권, 건강권, 적절한 환경의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 위험성 증가, 생명과 주거의 위협

- **건강 피해자, 기후우울증을 앓는 자 (건강권, 행복추구권)**

4. 진정한 참가방법

진정한 참가 방법

■ 진정한 작성 및 제시 필요사항

- 신상정보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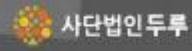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소통 예정)

- 어떤 내용의 인권 침해를 당하였습니까? 때, 장소, 내용
-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 제시

■ 참여하면 어떤 것이 변하나요?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한국의 행정·입법·사법부에게 공적 권위를 가진 문서로써 사회적 대화를 가속하게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정부기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고, 진정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사례 자료를 축적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의 사례와 가능성을 알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Thank you



- | 장애인권
- | 아동·청소년인권
- | 국제인권
- | 사회적경제
- | 환경

duroo.org